

# 위촌리 수사대

▶ 김예서, 양하진, 유세아, 조재준(송양초등학교)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잡아라!



## 리포트

위촌리 수사대가 바로잡는 강릉감자  
“감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 영 상

위촌리 수사대가  
바로잡는 강릉감자



## 각오한마디!

우리팀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지역에 대한 가짜뉴스를 찾고 팩트체크하는 수사대입니다. 송양초등학교가 위치한 강릉시 위촌리의 지명을 따서 “위촌리 수사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촌리 수사대는 우리 지역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를 찾아내 여러 번의 팩트체크 수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이라서 어리다고 생각해서 가짜뉴스가 뭔지 알긴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우려하는 마음이 꼭 들어가도록 우리 “위촌리 수사대”가 야무지게 활약해보겠습니다.

예서 팀장을 비롯하여 하진, 세아, 재준이가 조사하고 정리한 팩트체크 보고서를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찍은 영상들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팩트체크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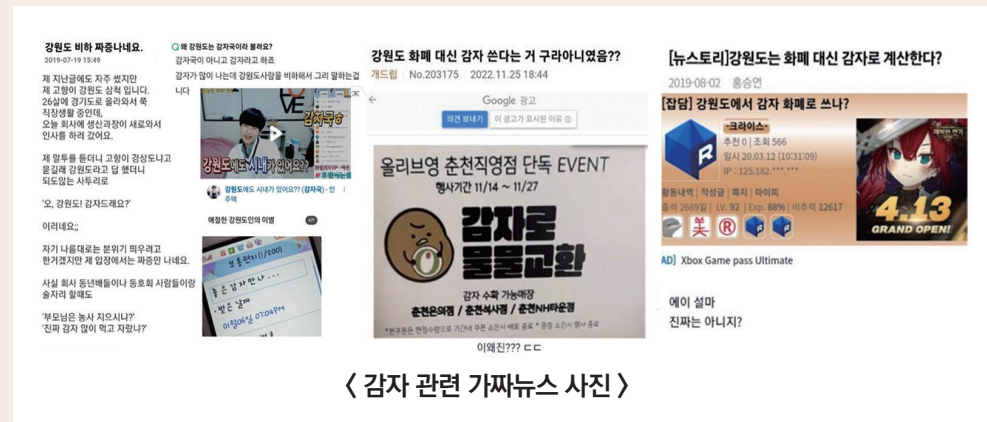
## 위촌리 수사대가 바로잡는 강릉감자 "감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강릉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바다를 비롯한 여행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강릉에 가려면 톨게이트 비용부터 감자로 계산하는 거 아니냐는 지역 혐오를 담은 가짜정보를 되묻는다. 혹은 강릉사람들을 감자로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와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개선하고 싶다. 이미 감자는 강릉을 대표하는 식재료를 넘어서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식품임을 팩트체크 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을 비하하는 인식을 담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사용하는 표현들을 바꾸고 싶다.



< 감자 관련 가짜뉴스 사진 >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 1.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가짜뉴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하기

- 『감기 걸린 물고기』 그림책을 활용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

##### 2. 실태 조사

- 송양초 학생들을 비롯한 강릉시민들은 어느 정도 가짜뉴스에 노출되었는지 스티커판을 제작하여 실태 조사
- 송양초 학생들과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교장선생님께 가짜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인터뷰하기

##### 3. 실제 팩트체크 활동과 자료 조사

- 강원도 강릉의 특산물인 감자에 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 결합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혐오’를 주제로 하는 책과 논문 찾아보기
- 울곡연구원장님을 인터뷰하여 예부터 강릉에서는 어떤 농사를 주로 하였는지 알아보고, 관련 논문과 자료 얻기
- 송양초 영양사 선생님을 인터뷰하여 감자의 영양성분 알아보기
-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감자 영양성분 실험해보기
- 감자를 활용한 강릉지역 특화음식 시식 및 감자 이미지 제고 실제 사례지 방문하기
-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견학하고, 최근 전국 지역별 감자 생산량 알아보기
- 그밖에 감자에 대한 뉴스와 신문기사 찾아보기

##### 4. 예상 결론

강릉사람들은 감자만 먹고 살지 않냐는 말은 강릉이 대관령 너머 작은 동네라는 지역 비하나 지역혐오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감자는 강릉 뿐 아니라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식품이다.

강릉은 일부 사람들의 놀림을 넘어서 감자를 연구 개발하여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감자를 활용한 음식에서 확장하여 강릉감자는 지역문화 아이콘으로서 다방면에서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체크해보기

## 01 찾아보기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1. 김정훈, “강원산불에 “구운감자”·“고기방패”... 국가재난 조롱하는 ‘혐오공화국’”, 이데일리, 2019.4.9,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49853?sid=102>  
해당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은 강원도의 특산물인 감자를 이용해 이번 산불을 희화화하고 있다. 실제 한 이용자는 “지금 강원도 가면 ‘구운 감자’가 공짜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강원도 산불 피해 비하·조롱 발언 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 감자를 이용하여 강원도 지역시민들에 대한 비하와 혐오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 한승미, “버스 탈 때 감자 짝나는 조롱,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강원도민일보, 2018.11.26,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40969>  
타지역민의 강원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정주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점도 드러났다. 학생들은 강원도에 대한 편견 때문에 떠나고 싶다고 입을 모으며 지인에게 들었던 농담들을 공유했다. ‘화폐가 감자니?’ ‘너 감자만 먹어?’ ‘감자로 티머니 짝니?’ 등 웃지 못 할 답변들이 우르르 올라왔다.  
B학생은 “강원도=시골”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속초, 강릉, 동해 라인 이 대표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쓰레기 투기 등을 단속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들이 강원도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라고 꼽았다. 그만큼 지역혐오, 지역비하

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3. 이영준,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멍청도” “감자국” “자살했어야” 노골적인 지역 발언”, 서울신문, 2015.3.23,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537006?sid=102>  
‘감자국(國)’(강원도)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들이다.  
온라인상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난무하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는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  
▶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4. 김주영, “우리 사회 일상이 된 혐오를 마주하다”, 강대신문, 2022.5.16, <https://knup.kangwon.ac.kr/index.php?mt=content&cp=&cm=oxbbs&oxid=10&BID=14213&cmd=view>  
지역 비하 표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언급하거나 사투리 흉내, 반어법을 이용한 조롱 등으로 나타난다.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으로는 강원도의 특산물인 감자에 국(國)자를 붙여 ‘감자국’, 충청도 지역은 ‘멍청도’, 전라도 지역은 ‘전라디언’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해당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 및 배제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혐오표현은 개인의 출신 지역을 부정적으로 낙인 찍어 비하하며, 차별하거나 이웃과의 갈등을 조장한다. 심지어 편견의 강화로 ‘해당 지역 사람들은 차별을 당해도 싸다’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생기기도 한다.  
▶ 지역 비하 표현은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고, 한번 만들어진 부정적 이미지나 고정관념은 지속적인 갈등과 편견을 조장한다.
5. 김윤주, “여성·지역 대상 온라인 혐오표현, ‘기사 댓글’서 가장 많이 접한다”, 한겨레, 2021.9.2,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198.html?\\_fr=mv](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198.html?_fr=mv)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1년 동안 오프라인 실생활이나 온라인 두 곳 중 한 곳에서라도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0.3%였다. 2019년 인권위의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64.2%)보다 6.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0%로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5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여성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많았고, 특정 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 노인(72.5%) 등이 뒤를 이었다.

▶ 지역혐오표현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자주 나타나고,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노출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6. 김태규, “갈등 부추기는 지역혐오 표현… 대응 방안 마련돼야”, 투데이신문,

2021.11.10,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41>  
지역혐오 발언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때문에 지역혐오 등 다양한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으로는 ▲강원도의 특산물인 감자에 국(國)자를 붙여 비하하는 말인 ‘감자국’ (중략) 이들 단어는 모두 해당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하며 배제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

혐오표현은 그 대상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롱과 멸시, 괴롭힘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은 사회적 위상을 위협받게 된다.

▶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이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알려주고 있다. 더 이상의 사회 갈등이 생기지 않고,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 7. 한수지, “가상공간 속 선명한 지역혐오”, 중대신문, 2020.4.5,

<https://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4003>

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여전히 어렵다.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글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강정한 교수는 “혐오 표현과 같은 과감한 표현을 허용하다 보니 문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위선을 거부한다는 핑계로 혐오적 정서를 표출하는 게 얼마나 초라한 일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줄 문명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능멸과 혐오를 통해 특정 지역민의 인격을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위선과 문명 차이는 ‘혐오’를 향한 우리의 인식에 달려있다. 법적 규제를 개선하는 방법 외에도 교육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인터넷 상에서 놀림과 지역비하를 담은 지역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서는 법으로 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들의 인식전환이 꼭 필요하다.

#### 8. 유형재, “강릉이 진짜 ‘감자바위’입니다”, 연합뉴스, 2006.12.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1489335?sid=103>

감자 주산단지인 강릉이 감자 재배농가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강원도 감자산업의 요람 역할을 하는 ‘강원도감자원종장’이 지난 10월 씨감자의 주산지인 백두대간 아래 왕산면 대기2리 닭목재 부근으로 이전, 명실상부한 진짜 감자바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한때 강원도를 비하하던 표현으로 쓰였던 감자바위가 웰빙, 로하스 시대를 맞아 최고의 특화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감자바위’하면 강릉을 생각나게 하는데, 실제 강원도의 대표적 작물인 감자의 주산지가 강릉으로 밝혀졌음을 알 수 있다.

#### 9. 권순일, “여름 감자의 건강 효능...그리고 잘 먹는 방법”, 코메디닷컴,

2023.6.1, [https://n.news.naver.com/article/296/0000066335?cde=news\\_my](https://n.news.naver.com/article/296/0000066335?cde=news_my)

감자는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이 제철인 뿌리채소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식품 중 하나인 감자는 에너지를 증강시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영양소를 많이 품고 있다. 영양 전문가들은 “감자야말로 농산물 분야에서 최고의 영양 가치를 지닌 식품”이라고 말한다.

▶ 감자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알려주는 기사로 건강 효능과 잘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 1. 이승현, 『혐오표현 -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내인생의책, 2021.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로 공격하고, 그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생각을 퍼뜨리는 표현을 뜻한다.

혐오표현의 내용에는 통계나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앞뒤 배경을 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왜곡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혐오표현을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편견이나 차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다. 나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이 이미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입니다.

▶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왜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혐오표현이 왜 위험한 것인지 설명한다.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책에서 말한다.

### 2. 장덕현, 『혐오와 인권 - 혐오 표현이 왜 문제일까?』, 풀빛, 2022.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혐오'라는 말을 아무 데나 붙여 쓸 수는 없어요.

혐오는 나, 우리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그런 차별을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처음 이러한 표현을 만든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혹은 재미로 했을지도 몰라요. 이에 동조한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재미로 그랬을 수 있지요. 하지만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 재미로 한 욕설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혐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떠도는 말들이 정말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보인지 따져 봐야 해요.

▶ 혐오문화가 왜 생기고, 어떠한 차별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 3. 양혜승, 「포털과 지역혐오 - 네이버 범죄뉴스의 지역혐오댓글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언론학보』 62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18.

2017년 네이버뉴스에 게재된 기사 중에서 범죄기사 687개를 추출하고 거기에 달린 전체 댓글 20,419개를 내용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혐오댓글은 850개, 전체의 4.16% 수준으로 나타났다. 혹자는 댓글 100개 중에서 지역혐오 내용을 담은 댓글이 4개 남짓 이라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댓글이 존재한다는 것의 사회적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혐오 내용을 담은 댓글이 단 1% 혹은 0.1%에 불과하다고 해도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 포털뉴스에서 관찰되는, 특정 지역과 관련한 혐오댓글이다. 실제로 포털뉴스의 댓글들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 혹은 지역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분 짓고 차별하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덧씌우고 있다는 점에서 '낙인'(stigma)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인들은 그러한 혐오표현들을 부지불식간에 학습하게 되고, 아울러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꾸준히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지역혐오댓글의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지역이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언급하는 유형을 살펴보았다. 비율로 보았을 때 지역혐오댓글이 높은 비중을 차지 않고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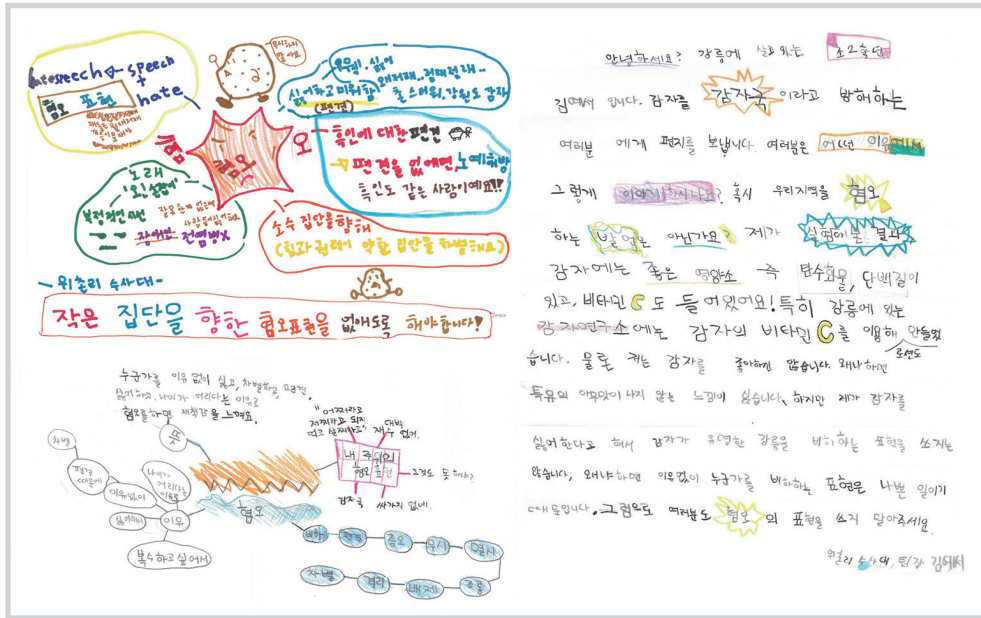
### 4. 홍성수,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충남대학교, 2019.

혐오는 쉽게 확산되어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때로는 세대를 거쳐 전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며 혐오는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뜻한다. 혐오는 그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혐오를 밖으로 드러냈을 때, 즉 혐오표현에 이르렀을 때부터 그 대응이 가능하다.

혐오가 실제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에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 혐오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정리하고 있다. 혐오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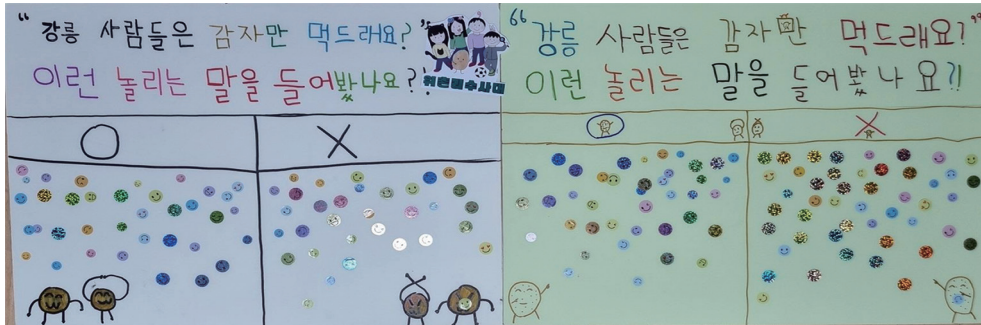


※ 팩트체크를 위한 논문 검색은 부모님과 매니저의 도움을 받았다. 어려운 문장이나 한자로 된 글은 매니저와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였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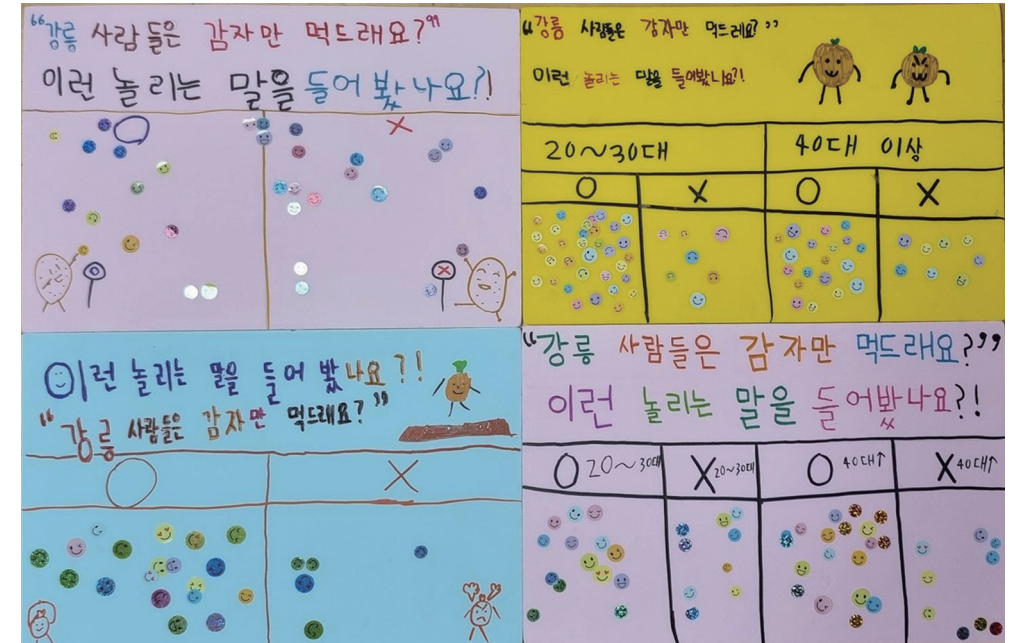
찾아보기 **02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가짜뉴스 노출 여부 조사 활동

송양초 학생들을 비롯한 강릉시민들은 어느 정도 가짜뉴스에 노출되었는지 스티커 판을 제작하여 실태 조사하였다.



〈송양초 조사〉



〈강릉시민 조사〉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강릉사람들은 감자만 먹드래요?” 가짜뉴스 주제에 대해 송양초 학생들은 ‘들어본 적 있다’와 ‘들어본 적 없다’의 정도 차이가 비슷했다. 송양초 학생들을 제외하고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무작위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위의 사진을 살펴보면 ‘들어본 적 있다’가 ‘들어본 적 없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 인터뷰 : 고광래 교장선생님 (송양초등학교 교장)

우리는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고광래 선생님을 인터뷰 하였다. 팩트체크하기로 한 가짜뉴스를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그 가짜뉴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았다.

Q1. 김에서 : 저희 2학년 친구들 네 명이 함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는 체커톤에 도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팀 첫 번째 활동으로 교장선생님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감자를 좋아하시나요? 우리학교 텃밭에서도 감자를 키우고 있지요?

→ 교장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첫 번째가 감자야. 감자로 만든 음식 중에서도 강릉에서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 바로 감자옹심이야. 선생님은 감자 옹심을 정말 좋아해. 음식점에 뭐 먹으러 갈까 그럼 첫 번째로 감자 옹심을 먹으러 갈 정도야. 선생님은 감자를 키워도 보고 캐보기도 하고 감자와 함께 자랐어.

**Q2. 양하진 :** 선생님, 제가 두 번째 질문할게요.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도시에 가셨을 때 강릉사람을 감자로 표현하면서 놀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교장선생님은 감자라고 놀리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직접 들어도 봤고, 텔레비전 같은 데서 강릉사람들을 감자라고 부르는 것도 들어봤어. 그때 교장선생님 기분이 어땠을까? 어렸을 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좋아. 왜냐하면 강릉사람을 감자라고 부르는 것은 강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감자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Q3. 조재준 :** 그럼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에서 ‘감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 강릉의 감자는 강릉을 알리는 아주 대표적인 특산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강릉 시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홍보 특산물인 감자야. 요즘은 감자가 점점 더 맛있어지고 감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물건들과 우리가 먹는 식품들이 엄청 다양해졌어. 감자 때문에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지. 감자한테 우리는 고맙지!

**Q4. 유세아 :** 저희 위촌리 수사대가 우리 고장 사람들을 ‘강원도감자, 강릉감자’라고 무시하고 놀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런 프로그램에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강릉 중앙시장에 가면 감자 유원지라는 감자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맛집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 주인들이 젊은 청년들이야. 너희들도 이 프로그램 도전을 발판으로 삼아서 나중에 그런 젊은 이들과처럼 감자를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서 강릉을 지키는 파수꾼이 됐으면 좋겠어.

될 수 있을까? 선생님 말씀 알겠지?

**🎧 두 번째 인터뷰 : 박원재 원장님** (울곡연구원 원장, 동양철학박사)

오죽헌과 함께 있는 울곡연구원을 방문하여 원장님을 인터뷰하였다. 예부터 강릉에서는 어떤 농사를 주로 하였는지 알아보고, 왜 강릉사람들을 감자에 빗대어 이야기하는지 여쭙보았다.

**Q1. 김에서 :** 저희 위촌리 수사대는 강원도 강릉을 ‘감자국’이라고 하거나 ‘강원도 강릉 사람들은 감자만 먹고, 돈 대신 감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강릉사람들은 감자만 먹드래요?”라며 놀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강릉사람들은 감자만 먹어요?”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감자 바우’라고도 하는 옛날에 놀리기도 하고 그랬죠. 예전에는 감자바우 그게 놀리는 말이었으니까. 어린 친구들도 어떤 친구가 놀릴 때는 어떤 좋은 뜻이라도 놀리는 말로 쓰면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을 보고 감자바우라는 말이 놀리는 말이었어요. 기분이 썩 좋진 않죠.

**Q2. 양하진 :** 강릉사람들은 옛날부터 주로 무엇을 먹었나요?

→ 강릉이 앞에 동해 바다가 있고, 뒤에 대관령이 있고 그렇죠? 그죠. 이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들 좋아해요? 바다에 생선들이 나죠. 생선도 먹고 또 산에 가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산에서 나는 열매라든가 나물, 나물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엄마들이 좋아하죠? 그런 거, 산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또 여기 보면 이제 밭이나 논도 많잖아. 그렇죠? 거기서는 골고루 산에서 나는 것과 밭에서 들에서 나는 것들 골고루 먹고 살았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글로 쓴 논문이라는 것인데, 논문이라는 말 알아야? 여기<sup>1)</sup>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알아야? 그때 우리나라 논에서

1) 구자욱 외, 『일제강점기의 조선 8도 식생활(끼니) 실태』, 『농업사연구』 제 8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09, 139쪽 참조.



나는 쌀들을 전부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우린 먹을 게 없었겠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배부르게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강원도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나물 같은 거, 그리고 감자와 옥수수 같은 거를 많이 먹었어요.

### Q3. 김에서 : 원장님은 어렸을 때 감자를 많이 드셨어요?

→ 감자 많이 먹었어요. 사실 나도 어렸을 때 감자 먹을 때 별로 이렇게 맛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먹을 게 많진 않죠. 그죠? 지금은 슈퍼나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엄청나지만은 옛날엔 그런 게 없어서 먹을 게 많지 않아 가지고 주로 밭에서 나가거나 아까 말한 바다나 산에서 나는 거를 직접 구해서 먹었는데, 그냥 먹는 감자는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감자를 썬 먹을 때 설탕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약간 달달하게 해 가지고도 먹고 그렇게 했었죠.

### Q4. 조재준 : 강릉에 살았던 옛날사람들과 지금 강릉사람들에게 감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아까도 말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죠 그렇죠. 이 따금씩 바다에 가서 생선 잡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게 먹을 게 많지 않아가지고 친구들도 맛있는 거라도 매일 먹으면 질려요? 계속 맛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 중에 감자가 주로 많았었으니까. 이제 먹을 때 오래 그만 먹으면 좀 더 질리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조선시대에는 대신 밭에서 나는 콩이라든가 논에서 나는 쌀이라든가 뭐 그런 걸 주식으로 먹었죠. 또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sup>2)</sup>에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지요? 여기에 보면 감자는 1824년에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1824년 이면 여러분 조선이라고 알아요? 조선시대에 감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감자라고 안하고 ‘감저’라고 했대요. 감저, 감저하다가 감자가 된 거겠지요? ‘감저’라는 말은 한자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들도 한자로 쓸 수 있지요? 그 한자는 뜻이 있는데, ‘감저’라는 뜻은 ‘맛있는 뿌리’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감자만 먹으면

2) 조현목 외, 「한국 감자 재래종의 역사적 고찰」, 『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44.6, 한국원예학회, 2003, 841~842쪽 참조.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맛이 없지만, 농사가 어렵고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 감자가 진짜 맛있는 뿌리로 생각되었지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었죠. 여러분, 감자칩 좋아해요? 감자칩 과자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허니버터칩 먹어봤죠? 그거 맛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이것도 감자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자를 먹을 때 이제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는 것처럼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감자를 아주 맛있게 해서 조미를 해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자칩이라든가 감자과자가 많고, 다음에 또 감자가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건강에 좋다고. 옛날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먹었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니까 감자가 사람들 몸에 좀 어려운 말인데 감자가 알카리성 식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먹는 게 대부분 산성이예요. 여러분 고기 많이 먹지요? 고기가 산성이거든요. 감자가 몸에 되게 좋은 성분이 많아서 요즘 일부러 감자를 찾아서 먹지요. 그다음에 또 감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면은 흉년이란 말 알죠? 그러니까 어떤 때 농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자는 웬만한 상태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기 다른나라나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이 감자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딱한 말로 그걸 구황작물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자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자가 맛이 없더라도 요즘 감자는 맛있는 요리로 쓰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대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식의 식품이 감자죠.

### Q5. 유세아 : 강릉감자, 강원도감자라는 표현은 왜 생겨났을까요? 놀림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그 경상도라는 동네 알아요? 경상도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사는 사람들을 오리문둥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나 하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작물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 놀리는 표현으로 사용했거든요. 강원도는 가장 많이 나는 게 이제 감자니까 이 감자바위라고, 바위라는 게 큰 돌덩이 있죠. 바위 그래서 산이 많아서 바위가 많고 그래서 그런 바위가 많은 산에 감자를, 감자만 심는다 해서 감자바위라고 놀렸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이 먹을 거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이래 가지고 감자가 또 건강에도 좋고, 오히려 감자바위인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감자바위라 놀리면 감자가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④ 세 번째 인터뷰 : 김지우 CEO (THE ROOT COMPANY, 감자유원지 최고경영자)

우리는 교장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고, 강릉감자를 이용하여 식음료 외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감자유원지 대표님을 만나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Q1. 김에서 : 저희 워촌리 수사대는 강원도 강릉을 ‘감자국’이라고 하거나 ‘강원도 강릉 사람들은 감자만 먹고, 돈 대신 감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강릉사람들은 감자만 먹드래요?”라며 놀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셨다면 그때 기분은 어떠셨는지요?

→ 저도 한 15년 정도 전에 들어본 거 같아요. 사실 강릉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저도 그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사실 다 지역에서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가서 강원도 출신 강릉 출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감자로 버스비를 내냐 감자를 먹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약간은 그런 뭐 비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비하가 반 정도 섞인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제 강원도는 시골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시골에서 대도시로 학교로 오거나 사회생활을 하러 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놀리듯이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근데 최근에 들어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하는데 저는 최근에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감자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친숙한 그런 음식이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다들 감자를 즐기고, 소비하는 방식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강원도를 강릉을 그냥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Q2. 양하진 : 누군가에게는 강원도 강릉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감자지만, 대표님을 비롯한 감자유원지 직원 분들에게는 감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지역이 가진 자원들 그런 것들을 잘 유지 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진 시대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변하지 않는 어떤 고유한 그런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나 강릉에서는 그게 감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였겠지만, 저희들 뿐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이제 강릉사람들이 지켜나가야 할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Q3. 조재준 : 대표님은 어떻게 감자를 아이টে으로 삼아 사업하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감자는 흔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먹는 감자를 새로운 방향에서 생각하신 점이 놀랍습니다.

→ 이제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예요. 강릉과 대관령은 그러니까 고랭지 기후고 감자가 기본적으로 저온성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니까 20도 이하에서 굉장히 잘 자라요. 우리나라는 장마도 있고 여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남부는 사실 감자를 키우기는 어려운 환경이고요. 감자가 원래 원산지가 페루잖아요. 안데스 거기 같은 경우는 감자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강릉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업도 켜있고 그러니까 어렵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자칩 같은 경우도 만드는데 사실 농심 같은 회사에서 30년 정도 감자칩만 만드신 분들이랑 그분이랑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감자칩 만들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도 이제 과자들 중에서도 감자칩이 제일 원가도 높고 제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도 하지 않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으니까. 좀 지역 색깔이 있는 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친구들이 좀 컸을 때는 옛날보다는 훨씬 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일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Q4. 김에서 : 대표님은 감자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감자를 정말 애정하는

것도 같고요. 강원도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권 감자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 감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은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관령 고령지  
연구소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연구를 하시고, 민간 영역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고령지  
연구소에서 품종을 개발하면 왕산 원종장 같은 곳에서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해요. 근데  
저는 대관령 고령지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쪽 계통의 유전자 저쪽 계통의 유전자를 섞어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보고, 어떤 바이러스에 강한 종자를 가지고 애는 뭐 갈변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은 종자들을 섞어서 만들어보는 연구들을 하시죠. 강원도 강릉권  
감자가 품종이 우수하고, 우리나라 감자 산업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Q5. 유세아 :** 저희는 이 팩트체크 작업을 통해 강원도 강릉 감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보고  
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보다 앞서서 이 작업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역비하 표현으로 감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자가 없었다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전에 먹고살기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감자는 역사도 있고, 앞으로는 강원도를 대표는 먹거리이자  
로컬푸드이자 콘텐츠로서 많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자를 비하하지  
말고 감자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네 번째 인터뷰 : 권예지 선생님 (송양초등학교 영양사)**

감자가 왜 몸에 좋은 식품인지, 못생겨 보이는 감자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학교 영양사 선생님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1. 김에서 :** 저희 위촌리 수사대는 강원도 강릉을 ‘감자국’이라고 하거나 ‘강원도 강릉  
사람들은 감자만 먹고, 돈 대신 감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강릉사람들은 감자만 먹드래요?”라며 놀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관련 영상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Q2. 양하진 :** 감자를 먹으면 몸에 좋은가요? 감자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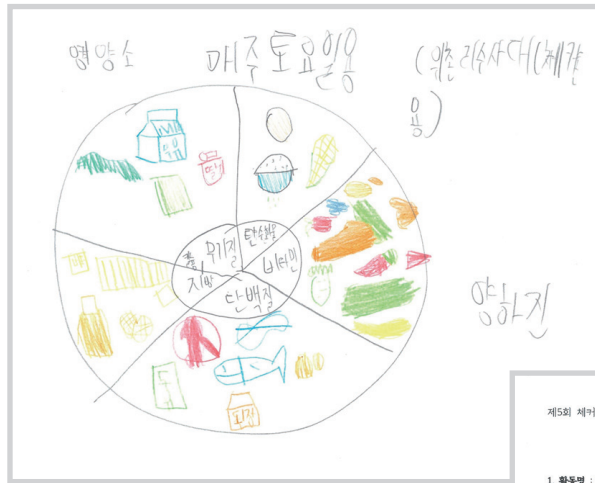
→ 감자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를 듬뿍 가지고 있는 영양 덩어리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영양소를 살펴보면 100g당 80%가 수분이고, 탄수화물은 16~17g  
정도 입니다.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기타 영양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성 식품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콩이지요? 그 다음으로 감자가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g당 2g정도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하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감자는 많은 종류의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땅속의 사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과에는 100g당 4mg정도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감자는 100g당  
2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사과의 4~5배의 비타민C가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 손상이 적어 67% 정도 우리 몸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대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B6이  
하루 권장량의 약 10% 가까이 함유되어 있으며, 감자하면 대표적인 미네랄 칼륨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근육을 움직이는데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감자 1개(100g)  
에는 556mg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은 이뇨작용으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의 껍질 부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 및 장 운동을 활발  
하게 합니다. 따라서 감자를 섭취하면 필요한 열량, 에너지,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아주 우수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Q3. 조재준 :** 강원도 강릉사람들을 놀리는데 왜 감자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산이 많아 낮은 온도와 척박한 땅에 생육이 쉬운 감자를  
재배해서 옛날에는 주식으로 이용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까지  
있어서 농사지을 땅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를 더 많이  
재배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감자가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좋은  
종자로 키운 강릉감자가 전국에 많이 퍼지게 되니 우스갯소리로 지역특산물 감자를  
빚대어 강릉사람을 지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Q4. 유세아 : 강릉감자, 강원도감자라는 말을 놀림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자는 균형 있는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 웰빙 식품이고, 우리 밥상 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이며 친숙하고 가까운 먹거리입니다. 특히 강원도 감자는 맛과 영양적 우수성이 높아 우리지역 감자가 유명한 것입니다. 강원도 강릉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로 만들어진 감자를 활용한 향토음식을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강릉의 감자가 언어적 표현으로 지역을 무시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친근한 표현으로 접근되면 좋겠습니다.



제5회 제커톤 활동 보고서  
 위촉의 수사대원 팀원 이름 : 김에서

1. 활동명 : 교장 선생님 인터뷰  
 2. 활동 일시와 장소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중앙초등학교 교장실  
 3. 활동 내용 및 소감 : 나는 교장실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 봤다. 그때 너무緊張되었다. 교장 선생님이 내 목소리가 작고, 딸바보 못 여기 해서 가르쳐 주셨다.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리고 감자음식이 늘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아 하시던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주셨다. 엄마들을 부르고, 목화 꽃이 있는 차도 엄마들에게 주셨다. 끝~

제5회 제커톤 활동 보고서  
 위촉의 수사대원 팀원 이름 : 조재준

1. 활동명 : 교장 선생님과의 감자이야기  
 2. 활동 일시와 장소 : 2023년 4월 21일 교장실  
 3. 활동 내용 및 소감 : 우리 네명이 다같이 모여 위촉의 수사대 디셔즈를 입고 교장실에 방문했다. 나는 우리가 사는 강릉에서 감자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드렸다. 많은 강릉 감자 이야기도 들려 주셨고 감자 식감 씹기도 들려 주셨다. 인터뷰 하느라 나도 친구들도 긴장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 잘했다고 아이스크림도 주셨다. 잘 마진 것 같아서 기분 좋았다.

제5회 제커톤 활동 보고서  
 위촉의 수사대원 팀원 이름 : 조재준

1. 활동명 : 울곡 연구원 방문  
 2. 활동 일시와 장소 : 5월 11일 목요일, 연구원 원장실  
 3. 활동 내용 및 소감 : 오죽하면 옆에 있는 울곡연구원에 방문해서 원장님과 인터뷰를 했겠다. 원장님께 감자에 대해 놀리는 말이나 강릉 사람에게 감자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감자는 고마운 작물이고 바위가 많은 산에 감자만 심어서 감자밭이라고 알려 주셨다. 또 무식한 사람들이 몸에 좋은 감자를 가지고 놀린다고 하셨다. 감자는 강릉의 소중한 작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도 함께 찍고 책선물도 주셨다.

제5회 제커톤 활동 보고서  
 위촉의 수사대원 팀원 이름 : 김에서, 양화진, 유세아, 조재준

1. 활동명 : 감자유원지 방문  
 2. 활동 일시와 장소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감자유원지  
 3. 활동 내용 및 소감 : 감자를 이용해 만든 음식과 음료 만들어 파는 식당에 방문했다. 시원한 율리프 주스와 감자스프를 주문해서 먹어보았다. 특히 율리프 감자국 만두도 파는 과자가 맛있었다. 율리프 운영자님이 황사에 있는 감자 종자 원 모뎀 개량하고 하셨다. 감자로 활용한 음식이 다양해서 다음에 또 먹으러 와야겠다.

제5회 제커톤 활동 보고서  
 위촉의 수사대원 팀원 이름 : 유세아, 양화진

1. 활동명 : 영양사 선생님 인터뷰  
 2. 활동 일시와 장소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중앙초등학교 급식실  
 3. 활동 내용 및 소감 : 수업이 끝나고 급식실에 들어갔다. 매니저님과 재준이와 화진이라 매해하는 인터뷰 할 준비를 했다. 영양사 선생님은 감자 주 먹만 한게 큰 사고 2개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감자 하나 먹으면, 아니면 큰 사고 2개 먹어야" 라고 말씀했다. 나를 포함해서 위촉의 수사대들은 '뭘지?'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의를 들 어보았다. 그리고 감자에 비타민 B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다. 재미있었다.

※ 인터뷰하기 전에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메일로 보내고 시간 약속을 잡았다. 실제 인터뷰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여 그 내용을 옮겨 적었다.

위의 영양사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직접 해보았다. 실험 설계는 EBS 동영상<sup>3)</sup>을 참고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재료들	
 <p>반응 용액</p>	 <p>실험 재료</p>
 <p>실험 키트</p>	 <p>갈아놓은 감자를 포함한 실험 재료</p>

###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

- 1. 실험 목표:** 감자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알아보기
- 2. 실험 준비물:** 영양소 검출 키트, 감자, 우유, 식용유, 전분
- 3. 실험 방법**

<sup>3)</sup> EBS 동영상, 2010년10월18일, [실험] 요오드 - 녹말 반응 [Video], 네이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47924&cid=65634&categoryId=65634>

#### (1)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요오드) 반응 보기

- ① 전분 용액에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요오드)을 넣어준다.
- ② 갈아놓은 감자에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요오드)을 넣어준다.
- ③ 물에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요오드)을 넣어준다.
- ④ 넣은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 (2) 뷰렛 용액(황산구리+수산화 나트륨) 반응보기

- ① 우유에 뷰렛 용액을 넣어준다.
- ② 갈아놓은 감자에 뷰렛 용액을 넣어준다.
- ③ 물에 뷰렛 용액을 넣어준다.
- ④ 넣은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 (3) 수단III용액 반응보기

- ① 식용유에 수단III용액을 넣어준다.
- ② 갈아놓은 감자에 수단III용액을 넣어준다.
- ③ 물에 수단III용액을 넣어준다.
- ④ 넣은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 (4) 감자로 비밀편지 쓰기

- ① 면봉을 비타민C 가루 녹인 물에 찍는다.
- ② 종이에 비타민C로 글씨를 쓴다.
- ③ 요오드(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에 종이를 적신다.
- ④ 나오는 글씨를 관찰한다.
- ⑤ 면봉을 갈아놓은 감자에 찍는다.
- ⑥ 면봉으로 종이에 글씨를 쓴다.
- ⑦ 요오드(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에 종이를 적신다.
- ⑧ 나오는 글씨를 관찰한다.

##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 1. 실험(1)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요오드) 반응 보기

⇒ **결과** : 전분 용액에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요오드)를 넣었을 때 청남색이 나왔고, 갈아놓은 감자에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요오드)를 넣어도 청남색이 나오는 걸 보아 감자에 전분(녹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것은 감자에 탄수화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

### 2. 실험(2) 뷰렛 용액(황산구리+수산화 나트륨) 반응보기

⇒ **결과** : 물에 넣은 뷰렛 용액은 색이 변하지 않았지만, 단백질이 있는 우유에 뷰렛 용액을 넣었더니 보라색으로 색이 변했다. 그런데 감자에 뷰렛용액을 넣었더니 똑같은 보라색이 나오는 걸 보아 감자에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실험(3) 수단Ⅲ용액 반응보기

⇒ **결과** : 물에 수단Ⅲ용액을 넣었을 때 아무 색깔 변화가 없지만, 지방으로 된 식용유를 넣으면 선홍색으로 변했다. 감자에 수단Ⅲ용액을 넣었을 때 물과 같이 거의 아무 색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감자에 지방은 들어있지 않거나, 아주 적게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4. 실험(4) 감자로 비밀편지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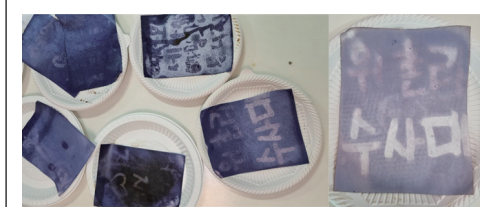
⇒ **결과** : 비타민C로 비밀편지 쓰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감자도 비밀편지가 써지므로 감자에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실험 (1),(2),(3)의 결과 - 유세아



실험 (4)의 비타민C 비밀편지 결과



실험 (4)의 감자 비밀편지 결과

**감자 영양소 실험 계획**  
 감자에 들어 있는 영양소를 알아내기  
 영양소 검출 키트, 감자, 우유, 식염수, 거품기  
 실험1: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용액 반응  
 ① 전분, 갈아 놓은 감자, 우유에 용액을 넣어준다.  
 ② '전분' 용액이 색이 변하고 관찰한다.  
 실험2: 뷰렛 용액 반응하기  
 ① 물, 갈아놓은 감자, 우유, 나뭇잎, 거품기 용액, 뷰렛 용액  
 ② 우유, 갈아놓은 감자, 물에 넣어  
 ③ 색 관찰하고 관찰한다.  
 실험3: 수단Ⅲ 용액 반응하기  
 ① 식염수, 우유, 물에 넣어  
 ② 색깔 변화 관찰하기

**감자 영양소 실험 결과**  
 실험1: 전분 용액과 갈아놓은 감자, 우유에 넣어준다.  
 → 감자에 전분(녹말)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2: 우유와 감자의 영양 성분 모두 검출된다.  
 → 감자에 단백질이 들어있다.  
 실험3: 식염수와 갈아놓은 감자, 우유에 넣어준다.  
 → 감자에 지방이 들어있지 않다.  
 비타민C로 비밀편지 쓰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감자도 비밀편지가 써지므로 감자에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감자 영양소 실험 그림**  
 이거 죽가 실험에 사용되도록 권합니다.  
 인체는 음식에 소다가 있고, 두번 짜는 양이 있고, 세번 짜는 결과, 네번 짜는 비타민C가 있는 것이다.

**실험 과정**  
 1. 감자 갈기  
 2. 전분 용액 만들기  
 3. 영양 성분 검출 키트 사용하기  
 4. 색 관찰하기  
 5. 기록하기

**영양 성분**  
 전분, 단백질, 지방, 비타민C, 칼슘, 철분, 인산염, 당분, 섬유질, 수분



실험 (1),(2),(3)의 결과 - 양하진, 조재준



실험 (1),(2),(3)의 결과 - 김에서

## 직접 방문하기(견학)

감자유원지 대표님이 말씀하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 견학을 신청하여 위촌리 수사대 마지막 공식 활동으로 다녀왔다. 최장규 연구사님의 안내로 연구소 홍보관과 교배하우스를 둘러봤다.

- ①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므로 식량자원으로서 감자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으로 감자가 주요 식량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 ② 병충해에 강한 감자 품종을 만드는 것이 고령지농업연구소의 중요한 일 중 하나다.
- ③ 공식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감자는 우리나라에 1824년에 들어왔다. 내년엔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주년이라서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 ④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품종은 50여종이지만, 재배 점유율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종 수미 감자다.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조금씩 감자시장을 바꿔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5회 제어본 활동 보고서

위촌리 수사대원 일원 이름 : 조재준

1. 활동명: 고령지 농업 연구소 견학
2. 활동 일시와 장소: 6/5 일요일 국립 식량 과학원
3. 활동 내용 및 소감: 감자를 연구하는 연구소에 견학을 다녀왔다. 우리가 처음보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감자를 개발하고 바이러스에 강한 감자 품종에 대해 연구하고 제했다. 감자를 물에서 재배해서 방울토마토처럼 자라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감자 밭에 감자 꽃을 관리하는 비밀 하우스도 견학했다. 세계 1위의 K감자가 자라느라 비타민 C도 가득 들어있는 소중한 식량인 감자로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3.6.6 화 양하진

<국립 식량 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소> 견학

방문 일시: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방문한 사람: 위촌리 수사대

방문한 곳: 연구소 홍보관과 교배 하우스

알게 된 사실:

1. 감자유원지-자본그대로 샀어.
2. 감자 진정종자 - 진짜 씨앗.
3. 국내 1인당 소비량 30kg 정도.
4. 감자는 비타민 C 함량이 높고 당도가 낮고 수분이 많다. 감자 면역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감자 연구가 감자유원지에 있어서 뿌듯했다.

느낀 점:

새로운 감자 품종이 2-3년 이상 걸린다.

나는 영양사라고 비타민이다. 감자도 거든.

## 그림책<sup>4)</sup>을 활용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생각해보기

초등학교 2학년 1반 이름: 조재준

박정섭,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 2020.

책 표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어떤 색깔의 물고기가 보이나요?  
 누가 감기에 걸렸을까요?  
 왜 감기에 걸렸을까요?  
 물고기는 감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책을 읽고 다음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1. 어귀는 왜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을 냈을까요?  
먹고 싶어서
2. 빨간 물고기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어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열이 쫄쫄 나서
3. 노란 물고기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란 콧물이 나서
4. 파란 물고기도 감기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몸이 싫을 땀서

이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정리해보세요.

- ① 물고기가 노란 물고기를 찾아낸다.
- ② 남아있는 검은 물고기와 회색 물고기가 서로 다툰다.
- ③ 어귀가 배가 고파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 ④ 어귀가 노란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을 낸다.
- ⑤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을 낸다.
- ⑥ 어귀가 검은 물고기와 회색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 ⑦ 물고기가 파란 물고기를 찾아낸다.
- ⑧ 물고기가 다시 모여서 어귀를 찾아낸다.
- ⑨ 어귀가 기침을 해서 물고기들이 싫어한다.

3-5-4-1-7-2-6-9-8

남은 물고기들이 싸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① 감정을 물고기가 싸우려고 해서. ② 회색 물고기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③ 누군가가 감기에 대한 소문을 의심하기 시작해서.  
 ④ 바닷속에 먹이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어귀에게 잡혀서 먹힌 후 든 생각이 아닌 것은? (4)  
 ① 어귀 말은 헛(거짓)소문이었다. ② 우리 모두 속았어.  
 ③ 우리가 왜 서로 의심하고 싸웠을까? ④ 우리가 진짜 감기에 걸린 거였어.

내가 만약 물고기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무시 흥분했어.

요즘 가짜 뉴스가 참 많이 퍼지고 있다고 있어요.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확인 여부 없앨 거예요.

4) 박정섭,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2020.

그밖에 감자에 대한 신문기사<sup>5)</sup> 찾아보기

기사작성일	2023년 4월 22일	연onso	이민이 조선일보
기사발행일	2023년 3월 28일	기사명	김성태 기자
주제	사회/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연애/문화/스포츠/역사/기타		

유세아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어린이조선일보,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기사

뉴스탐험대  
 레 화성에선 감자로 집 짓는대요

상에서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 나왔어요. 일반 콘크리트 재료기 아니라 사제요인 상을 이용했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2배 강한 콘크리트 '스타크리트(StarCrete)'를 개발했어. 현재 지구에서 사용하는 건축 기술은 우주 환경 적용하려면 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구 주주는 각각 다른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건축 자재로 화성과 같은 우주 환경으로 운반하 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스타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는 시멘트 대신 전분과 소금 그리고 화성 환경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배를 200% 늘 수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워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료 전분은 산업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돼요. 도 전분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늘어요. 전분이 습기에 의해 지구 환경에서는 사 기 어려워요. 달과 화성은 수분이 적은 환경이라 이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에 최적화된 뒤 감자를 재배하면 화성에서 얻은 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내했어요.  
 김성태 기자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질문>  
 1. 기사의 출처와 저자, 언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2. 이 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뉴스일까요?  
 어린이, 7월 2일,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3. 이 기사를 왜 만들었을까요?  
 감자에 대해 알려주려고, 감자로 벽돌을 만들수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4. 이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스타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는 시멘트 대신 전분과 소금 그리고 화성 환경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배를 200% 늘 수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워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료 전분은 산업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돼요. 도 전분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늘어요. 전분이 습기에 의해 지구 환경에서는 사 기 어려워요. 달과 화성은 수분이 적은 환경이라 이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에 최적화된 뒤 감자를 재배하면 화성에서 얻은 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내했어요.

기사작성일	2023년 4월 22일	연onso	이민이 조선일보
기사발행일	2023년 3월 28일	기사명	김성태 기자
주제	사회/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연애/문화/스포츠/역사/기타		

유세아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어린이조선일보,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기사

뉴스탐험대  
 레 화성에선 감자로 집 짓는대요

상에서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 나왔어요. 일반 콘크리트 재료기 아니라 사제요인 상을 이용했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2배 강한 콘크리트 '스타크리트(StarCrete)'를 개발했어. 현재 지구에서 사용하는 건축 기술은 우주 환경 적용하려면 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구 주주는 각각 다른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건축 자재로 화성과 같은 우주 환경으로 운반하 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스타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는 시멘트 대신 전분과 소금 그리고 화성 환경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배를 200% 늘 수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워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료 전분은 산업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돼요. 도 전분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늘어요. 전분이 습기에 의해 지구 환경에서는 사 기 어려워요. 달과 화성은 수분이 적은 환경이라 이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에 최적화된 뒤 감자를 재배하면 화성에서 얻은 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내했어요.  
 김성태 기자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질문>  
 1. 기사의 출처와 저자, 언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2. 이 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뉴스일까요?  
 어린이, 7월 2일,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3. 이 기사를 왜 만들었을까요?  
 감자에 대해 알려주려고, 감자로 벽돌을 만들수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4. 이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스타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는 시멘트 대신 전분과 소금 그리고 화성 환경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배를 200% 늘 수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워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료 전분은 산업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돼요. 도 전분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늘어요. 전분이 습기에 의해 지구 환경에서는 사 기 어려워요. 달과 화성은 수분이 적은 환경이라 이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에 최적화된 뒤 감자를 재배하면 화성에서 얻은 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내했어요.

기사작성일	2023년 4월 22일	연onso	이민이 조선일보
기사발행일	2023년 3월 28일	기사명	김성태 기자
주제	사회/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연애/문화/스포츠/역사/기타		

조시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어린이조선일보,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기사

뉴스탐험대  
 레 화성에선 감자로 집 짓는대요

상에서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 나왔어요. 일반 콘크리트 재료기 아니라 사제요인 상을 이용했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2배 강한 콘크리트 '스타크리트(StarCrete)'를 개발했어. 현재 지구에서 사용하는 건축 기술은 우주 환경 적용하려면 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구 주주는 각각 다른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건축 자재로 화성과 같은 우주 환경으로 운반하 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스타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는 시멘트 대신 전분과 소금 그리고 화성 환경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배를 200% 늘 수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워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료 전분은 산업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돼요. 도 전분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늘어요. 전분이 습기에 의해 지구 환경에서는 사 기 어려워요. 달과 화성은 수분이 적은 환경이라 이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에 최적화된 뒤 감자를 재배하면 화성에서 얻은 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내했어요.  
 김성태 기자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질문>  
 1. 기사의 출처와 저자, 언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2. 이 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뉴스일까요?  
 어린이, 7월 2일,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3. 이 기사를 왜 만들었을까요?  
 감자에 대해 알려주려고, 감자로 벽돌을 만들수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4. 이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스타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는 시멘트 대신 전분과 소금 그리고 화성 환경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배를 200% 늘 수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워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료 전분은 산업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돼요. 도 전분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늘어요. 전분이 습기에 의해 지구 환경에서는 사 기 어려워요. 달과 화성은 수분이 적은 환경이라 이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에 최적화된 뒤 감자를 재배하면 화성에서 얻은 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내했어요.

기사작성일	2023년 4월 22일	연onso	이민이 조선일보
기사발행일	2023년 3월 28일	기사명	김성태 기자
주제	사회/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연애/문화/스포츠/역사/기타		

조시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어린이조선일보,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기사

뉴스탐험대  
 레 화성에선 감자로 집 짓는대요

상에서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 나왔어요. 일반 콘크리트 재료기 아니라 사제요인 상을 이용했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2배 강한 콘크리트 '스타크리트(StarCrete)'를 개발했어. 현재 지구에서 사용하는 건축 기술은 우주 환경 적용하려면 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구 주주는 각각 다른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건축 자재로 화성과 같은 우주 환경으로 운반하 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스타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는 시멘트 대신 전분과 소금 그리고 화성 환경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배를 200% 늘 수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워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료 전분은 산업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돼요. 도 전분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늘어요. 전분이 습기에 의해 지구 환경에서는 사 기 어려워요. 달과 화성은 수분이 적은 환경이라 이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에 최적화된 뒤 감자를 재배하면 화성에서 얻은 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내했어요.  
 김성태 기자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질문>  
 1. 기사의 출처와 저자, 언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2. 이 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뉴스일까요?  
 어린이, 7월 2일,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3. 이 기사를 왜 만들었을까요?  
 감자에 대해 알려주려고, 감자로 벽돌을 만들수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4. 이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스타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는 시멘트 대신 전분과 소금 그리고 화성 환경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배를 200% 늘 수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벼워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료 전분은 산업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돼요. 도 전분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늘어요. 전분이 습기에 의해 지구 환경에서는 사 기 어려워요. 달과 화성은 수분이 적은 환경이라 이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에 최적화된 뒤 감자를 재배하면 화성에서 얻은 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내했어요.

5) 김성태, "미래 화성에선 감자로 집 짓는대요", 어린이조선일보, 2023년 3월 28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692058&memberNo=41266020&vType=VERTICAL>

5.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정리해보세요.

유세아

● 울고기들이 노란 울고기를 찾아낸다.  
 ● 날아있는 검은 울고기와 희색 울고기가 서로 다툰다.  
 ● 아귀가 배가 고파서 울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 아귀가 노란 울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은 낸다.  
 ● 빨간 울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은 낸다.  
 ● 아귀가 검은 울고기와 희색 울고기도 잡아먹는다.  
 ● 울고기들이 피란 울고기를 찾아낸다.  
 ● 울고기가 다시 모여서 아귀를 쫓아낸다.  
 ● 아귀가 기쁨을 해서 울고기들이 살아낸다.

3-5-4-1-7-2-6-9-8

6. 남은 울고기들이 싸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3)  
 ① 감정의 울고기가 싸우려고 해서. ② 희색 울고기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③ 누군가가 감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④ 바닷속에 먹이가 부족해서.

7. 울고기들이 아귀에게 잡혀서 먹힌 후 든 생각이 아닌 것은? (4)  
 ① 아귀 말은 헛소리였소만 이잖아. ② 우리 모두 속았어.  
 ③ 우리가 왜 서로 의심하고 싸웠을까? ④ 우리가 진짜 감기에 걸린 거였어.

8. 내가 만약 울고기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린 감기 안 걸렸잖아. 가짜뉴스 믿을 수 있잖아!"

9. 요즘 가짜 뉴스가 참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휘둘리지 않으려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짜뉴스를 믿어서, 진짜뉴스를 만든 다음, 증거를 찾아야. 자기 말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고, 내가 진짜 뉴스가 맞으면 믿지 않는다.

독서는습 습득 활동지

유준리 수사대 2학년 1반

박정섭, 『감기 걸린 울고기』, 사계절, 2020.

● 어떤 색깔의 울고기들이 보이나요?  
 ● 누가 감기에 걸렸을까요?  
 ● 왜 감기에 걸렸을까요?  
 ● 울고기는 감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1. 아귀는 왜 울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을 냈을까요?  
 먹고살아서.

2. 빨간 울고기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아귀는 어떻게 설명해주었나요?  
 "감기 걸리면 영이 피곤 나잖아. 그래서 빨간거야"

3. 노란 울고기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방기 걸리면 난 몸이 나오잖아. 그래서 노란거야!"

4. 피란 울고기도 감기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으으으 으으 으으

5.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정리해보세요.

김예서

● 울고기들이 노란 울고기를 찾아낸다.  
 ● 날아있는 검은 울고기와 희색 울고기가 서로 다툰다.  
 ● 아귀가 배가 고파서 울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 아귀가 노란 울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은 낸다.  
 ● 빨간 울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은 낸다.  
 ● 아귀가 검은 울고기와 희색 울고기도 잡아먹는다.  
 ● 울고기들이 피란 울고기를 찾아낸다.  
 ● 울고기가 다시 모여서 아귀를 쫓아낸다.  
 ● 아귀가 기쁨을 해서 울고기들이 살아낸다.

3-5-4-1-7-2-6-9-8

6. 남은 울고기들이 싸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3)  
 ① 감정의 울고기가 싸우려고 해서. ② 희색 울고기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③ 누군가가 감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④ 바닷속에 먹이가 부족해서.

7. 울고기들이 아귀에게 잡혀서 먹힌 후 든 생각이 아닌 것은? (4)  
 ① 아귀 말은 헛소리였소만 이잖아. ② 우리 모두 속았어.  
 ③ 우리가 왜 서로 의심하고 싸웠을까? ④ 우리가 진짜 감기에 걸린 거였어.

8. 내가 만약 울고기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는 안 믿고 무시했다.

9. 요즘 가짜 뉴스가 참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휘둘리지 않으려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짜 뉴스를 믿지 않고, 무심했다. 진짜 뉴스가 있으면 증거를 살펴 달라고 하기 하면, 팩트 체크를 해보!

독서는습 습득 활동지

유준리 수사대 2학년 1반

박정섭, 『감기 걸린 울고기』, 사계절, 2020.

● 어떤 색깔의 울고기들이 보이나요?  
 ● 누가 감기에 걸렸을까요?  
 ● 왜 감기에 걸렸을까요?  
 ● 울고기는 감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1. 아귀는 왜 울고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을 냈을까요?  
 울고기를 먹고 싶어서.

2. 빨간 울고기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아귀는 어떻게 설명해주었나요?  
 영이 나다고 해서.

3. 노란 울고기가 감기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노란 몸이 나서.

4. 피란 울고기도 감기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으으으 으으 으으



## 결론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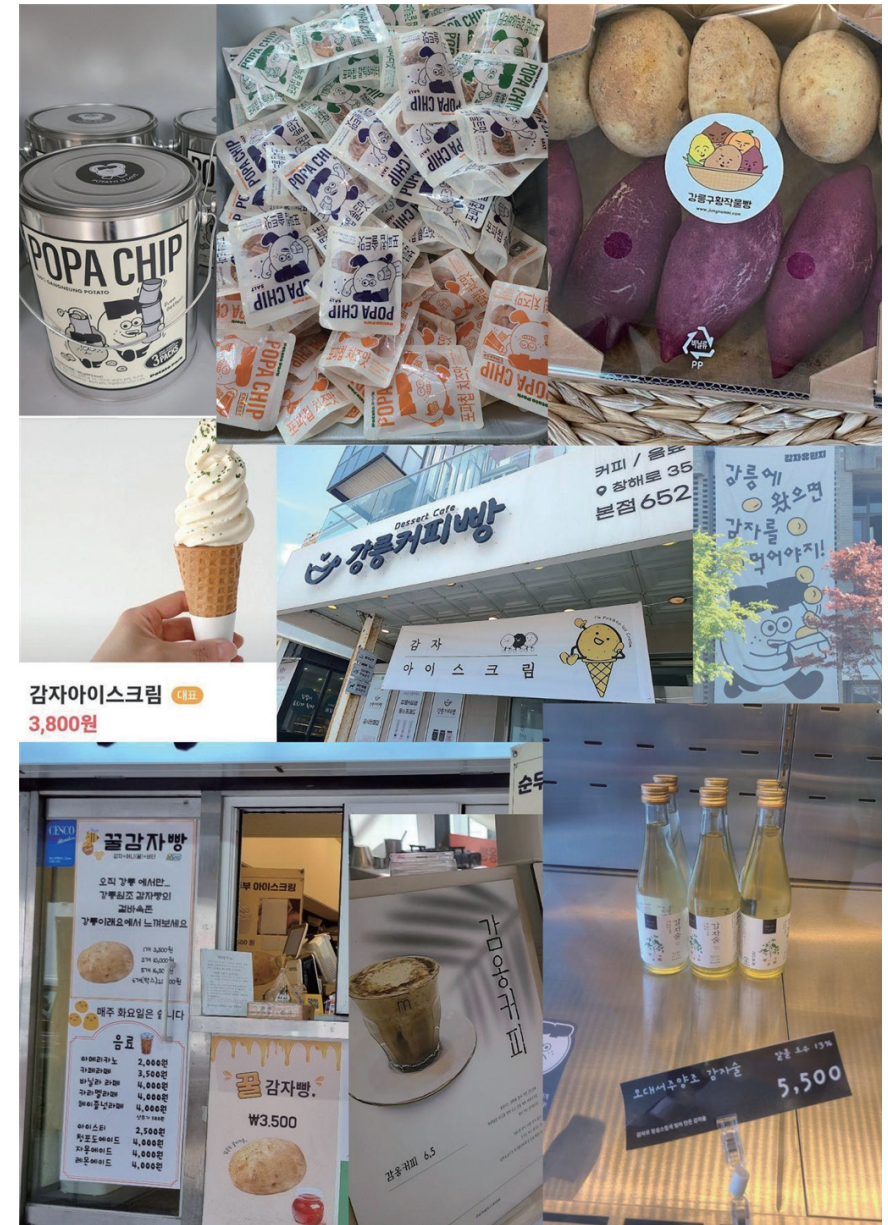
위촌리 수사대가 “위촌리 수사대가 바로잡는 강릉감자 - 감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를 팩트체크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시작하였는데, 하나는 이 이야기는 우리지역을 비하하는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감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보고자 했다.

강릉사람들을 감자라고 놀리는 이야기는 ‘① 찾아보기’에 인용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강릉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지역혐오 표현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지역혐오를 막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편견이나 차별 의식은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혐오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밑에 깔린 편견부터 찾아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 속에 혐오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접할 때는 조심해서 보아야 한다. 정보의 출처와 작성자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왜곡된 편집은 없는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가 가진 생각이 편견은 아닌지 고민하는 습관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또 다른 활동 목표인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강릉감자의 이미지를 바꿔보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강릉감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여러 활동들을 하였다. 강릉감자 팩트체커로 활약하는 동안 크게 느낀바가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 상에서 놀림과 지역비하로 쓰이는 감자를 넘어서 강릉감자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의 놀림과는 다르게 강릉감자는 연구 개발을 거듭하여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강릉에서는 감자를 활용한 일반적인 음식(감자전, 감자옹심이 등등)에서 확장하여 지역문화 아이콘으로서 다방면에서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혐오를 막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실천되고, 강릉감자는 지금처럼 지역문화를 대표하여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강릉감자라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강릉감자를 누구나 좋아하고 즐기는 때가 오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 강릉감자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진 〉

# 미디어 콘텐츠

## 위촌리 수사대가 바로잡는 강릉감자

### 콘텐츠 소개

#### 👉 기획의도

강릉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바다를 비롯한 여행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강릉에 가면 틀게이트 비용부터 감자로 계산하는 거 아니냐는 지역혐오를 담은 가짜정보를 되묻는다. 혹은 강릉사람들을 감자로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와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개선하고 싶다. 이미 감자는 강릉을 대표하는 식재료를 넘어서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식품임을 팩트체크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을 비하하는 인식을 담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사용하는 표현들을 바꾸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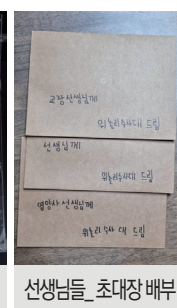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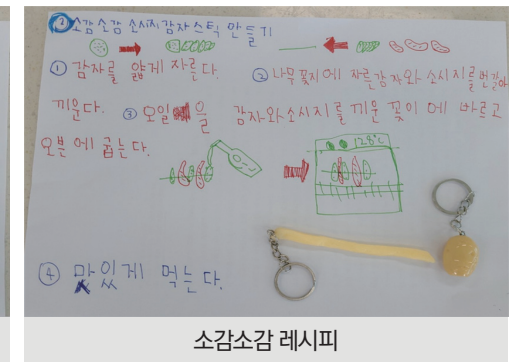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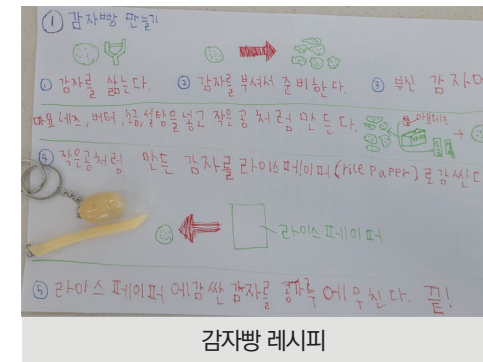
#### 👉 상세설명

1. 리플렛 사이즈와 지면 분할 선정하여 맡은 부분 각자 작업하기
2. 감자를 소재로 하는 베이킹 공동 작업 - 공유주방 예약하기 (소요시간 2시간)
3. 팀원들과 함께 리플렛 파일 편집하기
4. 인쇄소 알아보기 - 지역 업체 or 인터넷 업체 견적 비교하기 (약 200부 인쇄)
5. 플라마켓(서부시장 CCC) 알아보고 셀러 신청 (8월 26일 오후6~8시)
  - ▶ 애초 계획은 학교 어울마당에서 캠페인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제출기한에 맞춰 하느라 강릉 관내에서 진행되는 플라마켓을 알아보고, 서부시장CCC로 선정했다.
6. 기부금 마련을 위한 굿즈 선정

7. 인터뷰 도움 주신 분들과 송양초 선생님, 친구들에게 캠페인 초대장 보내기
8. 리플렛 배부와 지역혐오 표현 금지 캠페인 진행
9. 굿즈 판매금 정산하여 강릉시청에 기부하기

1면 표지 디자인 “위촌리 수사대가 바로잡는 강릉감자”	2면 지역혐오를 멈춰달라는 편지글 (예서)  지역혐오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주기 (세아)	3면 감자 영양정보 인포그래픽 (하진)  감자 베이킹 레시피 소개 (팀원 전부 공동작업)	4면 팀원 소개 및 활동 소감  “강릉으로 감자 드시러 오세요.” 캠페인 (재준)
--------------------------------------	---	--	--

[리플렛 페이지 구성안]



#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배부할 리플렛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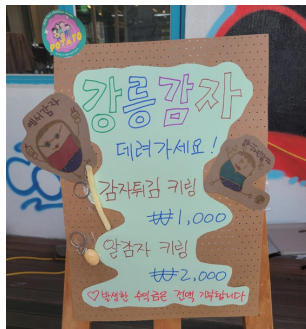
서부시장 CCC에서 캠페인 준비



방문해주신 담임 선생님과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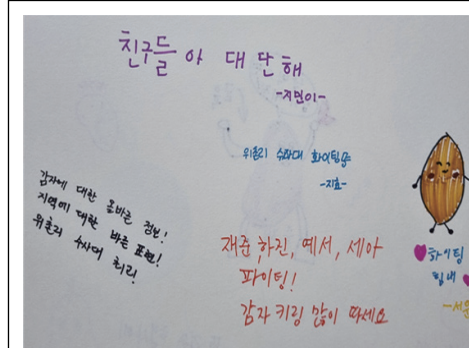
친구들에게 홍보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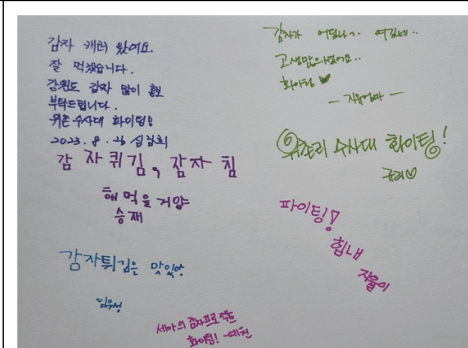
감자 키링 판매 및 기부금 마련 알림판



강릉 KBS 라디오 인터뷰  
<https://www.podbang.com/channels/1771325/episodes/24768780>  
 (다시듣기 : 24분15초부터 위촌리 수사대 인터뷰)



방명록1



방명록2



홍보 배너 옆에서 기념촬영



기부하러 강릉시청 희망복지과 방문



기부하고 기분 좋은 팀원들

위촌리 수사대 기부	
거래내역	2023.09.06 14:28:59
거래구분	일반기부
거래금액	-270,000원
이체금식	270,000원
수수료	0원
입금계좌	강원도공동모금회 농협은행 20961546197
받는 분에게 표기	위촌리 수사대
*위촌리 수사대 기부' 감사하기 >	

기부금 송금 확인증

## 참여소감

### 김예서

처음 위촌리 수사대 팀장을 맡기로 했을 때는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팀원들에게 할 일을 정해주고 잘 마무리했을 때 아주 뿌듯했다. 강릉사람을 감자에 빗대어 놀리지 말라는 편지를 쓰고, 녹음하여 큐알 코드로 작업하는 일은 끝까지 또랑또랑하게 읽어야 해서 힘들긴 했다. 그래도 인쇄된 리플렛을 받았을 때와 배부하는 캠페인을 할 때는 아주 즐거웠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각자 해야 할 일을 나누고 강릉시민들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리플렛을 나눠주는 일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재밌는 일이었다. 4월부터 준비한 체커톤 팩트체커 활동이 이제 마무리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무엇보다 가짜뉴스가 왜 나쁜지 알게 된 것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 양하진

나의 형은 2회 체커톤 참가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진행과정과 결과물을 보면서 체커톤은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였다. 2학년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지 않고, 어렵기도 했다. 그러나 혐오가 무엇인지, 감자라고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감자의 좋은 영양소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친구들과 공유주방에서 할 베이킹 레시피를 만들어보는 작업은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일이었다. 서부시장에 캠페인 활동을 갔을 때 우연하게 라디오 리포터를 만나 우리 활동을 알릴 수 있어서 더 좋았다. 내 목소리가 라디오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감자가 좋아져서 감자튀김 말고도 감자볶음이나 찌개에 든 감자도 잘 먹게 되었다.

### 유세아

평소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티커 조사부터 교장 선생님 인터뷰까지는 많이 떨리긴 했다.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올라 리플렛 작업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지역혐오 표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런 혐오나

비하가 담긴 표현들은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그린 감자 그림이 인쇄되어 나왔을 때랑 팀원들을 감자 그림으로 그린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감자빵 만드는 것은 쉬워서 집에서 언니와 함께 다시 만들어보기도 했다. 체커톤을 준비하기 위해 『감기 걸린 물고기』책을 친구들과 읽은 적이 있다. 친구들끼리 쉽게 전달하는 소문이나 가짜뉴스는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 조재준

리플렛 작업에서 나는 강릉감자를 활용한 음식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예선에서 인터뷰 갔던 식당의 감자칩과 감자스프를 그리면서 우리의 긴 작업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났다. 캠페인에서 사람들에게 감자에 관련된 퀴즈 내는 역할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퀴즈를 낼수록 재미가 있었다. 선생님도 아빠도 오셔서 응원해주셔서 엄청 신났다. 여러 분들이 내주신 기부금으로 강릉시청에 처음 기부를 해보기도 했다. 이것을 끝으로 체커톤 본선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감자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말로 쓰는지 몰랐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제를 정하고 팩트체크해 보면서 알게 되었다. 전국 제일의 강릉감자를 놀리는 말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또 해보고 싶다.